

5·18 특별법 개정안 5·18전 처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4당 합의, 한국당 반발
판사·검사·고위경찰 범죄에
공수처 기소권 제한적 부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총선의 지각 변동은 물론 사법 체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4당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있는데다 각종 정치적 변수가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광영·민주평화당 장병안·정의당 윤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우 판·검 이상의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



1913송정역시장 청년사업가 파이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광주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을 찾아 청년사업가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제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 10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에 대해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하겠다"며 "선거제,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경우도 스타트업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이제 상생과 공존 바탕으로 성장해야”

박영선 중기부장관 광주 방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이 이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일보를 방문, 김여송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도 바뀌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상생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광주를 찾아 골목 상권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현장을 둘러봤다"면서 "중기부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 사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경우도 스타트업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하고, 이를 중기부가 적극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현대카드와 상생협력하고 있는 1913 송정역시장과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현장인 광주 내이버파트너스퀘어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또 광주 진곡산단 내 수소 스테이션 등 수소 산업 관련 시설을 둘러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광주시가 수소차 관련 경제는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과 수소 자율주행차를 연계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광주일보 김여송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았지만,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분위기 고조



공식 유니폼·메달 오늘 공개
입장권 구매도 한창
31사단 등 군부대 인력 지원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은 무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80여일을 앞두고 성공 개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4일 서울에서 대회 공식 유니폼과 메달이 공개되는데 이어 지역 각계의 입장권 구매도 잇따르고 있다. 31사단 등 군부대도 대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경계작전은 물론 인력을 지원키로 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주)광주신세계, 서진건설,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등 서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및 자생단체 8곳에서 576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주)해양에너지와 Y-마트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불 조성에 동참했다.

24일에는 서울 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회 공식 유니폼과 시상 메달이 공개된다. 대회 기간 중 국제수영연맹 임원, 심판, 의전요원, 기수 및 시상요원 등이 입게 될 정장 유니폼 등이 직종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될 메달은 무등산과 영산강을 형상화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한창이다. 광주 광산구는 대회 참가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해 '외국인이 운전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차량용 스티커를 송정역과 공항 주변 렌터카 업체에 무료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배부했다. 스티커에는 QR코드를 넣어 지역 문화재와 맛집을 쉽게 찾도록 했고, 교통규칙을 영어 등으로 인쇄한 책자도 렌터카 업체에 비치했다.

지역 군 부대도 대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탠다. 육군 31사단(사단장 소영민 소장)과 503여단장(대령 박재호) 등은 대회 기간 중 ▲대회 주유시설 내·외곽에 대한 화생방 정찰대(편의대) 운영 ▲시설별 주요 취약지점 관측소 운영 및 공역 경계 ▲유사시 대비 대테러 특공대, 기동타격대 및 폭발물 처리반(EOD) 등을 운용한다. 31사단은 경비작전 외에도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수송, 통역, 개·폐회식 기수단, 문화공연 지원 등 총 700여명의 군부대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회 기간 중 국립공원 무등산에 친환경 차를 운행하려는 계획은 국립공원 사무소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무등산 원호사~장불재 6.4km 구간에서 친환경 차를 시범 운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재 '탐방로'인 길을 '도로'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어렵고 일부 구간을 확대·포장하는 과정에서 훼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단체도 무등산 정상군부대 이전과 복원에 힘을 쓸 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심상찮은 산불 무등산도 위험하다 ▶ 6면

굿모닝 여행 - 버스로 남도 한바퀴 ▶ 18면



KIA 투수 양승철 난세의 영웅 될까 ▶ 20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명품하는 행복하군민

BUS TOUR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도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도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